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③ (가), (나)의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④ (가),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⑤ (가), (나)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창조 산업은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 ② 창조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을 단시간에 개조해야 한다.
-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 ④ 창조 도시에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⑤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27.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갖추고                      ② ㉡: 늘리는
- ③ ㉢: 높이는                        ④ ㉣: 이끈
- ⑤ ㉤: 따르기도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  
 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  
 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  
 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곱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험  
 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닳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굴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곁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꾸새가** [A]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올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홀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으니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B]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양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양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늪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양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움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

얹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이윽한: 시간이 지난.  
\*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단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셈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챙: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 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애고기도 뉘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쁨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A]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라.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향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긋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B]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감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감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